

서언

무슨일이든 시작이 좋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새끼오리때 사양관리를 잘 하여 폐사없이 건강한 새끼오리를 기르는데서 출발한다.

새끼오리는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다량이 폐사하여 사육농가에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잘못된 사양관리는 농장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사의 70-80%가 입식후 20일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때 이 기간중의 새끼오리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보다 높은 농장 생산성에 의한 경영소득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새끼오리의 사양관리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새끼오리 구입

육용오리 사육농가의 최대목표는 사육되고 있는 오리의 압군 전체가 고르게 성장하고 원하는 출하체중에 빠르게 도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전능력이 뛰어난 품질좋은 새끼오리의 구입이 가장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여기에 질 좋은 사료의 급여 및 최적의 환경관리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유전능력이 뛰어난 정도의 측정치는 사료요구율로 나타내고 질 좋은 사료의 측정치는 사료효율로 나타낸다.(사료효율은 먹은사료량 ÷ 출하체중)

국내서 많이 사육되고 있는 폐킨종 오리는 영국의 체리베리사에서 도입된 슈퍼엠 2와 프랑스에서 도입된 스타63 등으로 대별되며 이들 육종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사료요구율은 슈퍼엠2의 경우 40일령 도달체중 2.76Kg, 사료요구율은 2.2, 45일령 도달체중 3.15Kg 사료요구율은 2.35, 48일령 도달체중 3.35Kg 사료요구율은 2.44, 50일령 도달체중 3.46Kg 사료요구율은 2.49 이다.

또 스타63은 42일에 도달체중 3.4Kg 사료요구율은 2.3, 49일에 도달체중 3.8Kg 사료요구율은 2.5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유전능력을 가진 새끼오리라고 하더라도 사양관리가 잘 못되면 그 능력은 발현되지 않으나 가능한 유전능력이 좋은 새끼오리를 구입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초생추 구입시 품종 증명서를 확인하여 새끼오리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입추전 관리

1) 육추실 준비: 1천수 정도는 육추망(척카드) 2개 정도를 준비하여 3일 령부터 망넓이기를 한다. 1천수 이상은 수수에 따라 축사부분을 막아서 사용하는데 최소한 2천수당 20평을 준비한다. 벽부분의 90cm는 바닥과 겹쳐서 비닐을 깔아 벽쪽의 오물이 묻지 않도록 격리한다.

2) 육추실 소독: 질병으로 안전하기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독후 3개월정도 비워 놓는 것이 좋으며 소독방법은 복토,양재물 소독 4가염소 제재소독,차아염소산 나트륨 소독,생석회 살포 등이 있으나 생석회 살포는 값이 싸면서 살균 살충 살바이러스 소독을 할 수 있어 권장된다.

3) 육추실 바닥관리: 육추실 바닥은 왕겨를 깔짚으로 사용할 때 여름철 3cm, 겨울철 5-6cm를 깔고 왕겨는 신선한 것을 사용한다.

4) 온도관리를 위한 기기점검: 육추기는 가스육추기 1대와 석유 열풍기1대를 반드시 설치하여 고장 및 정전에 대비한다. 환기를 위한 환기장치를 달고 점검한다.

5) 온도관리: 육추실의 온도는 입추시 육추기 밑이 $34\pm 1^{\circ}\text{C}$ 가 되게하고 실내온도는 27°C 로하여 1일 0.25°C 씩 낮춰 준다. 축사 윗부분에 환풍기를 달아 위에서 아래로 불이면 육추실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권장된다.

6) 점등 및 습도관리: 점등은 $70-100\text{Lux}/\text{m}^2$ 당 3w로 3일 연속 점등해 준다. 열풍기에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가 부착된 것을 구입하여 초생추는 매우 건조돼 있으므로 입식후 3-4일은 습도가 $70\pm 10\%$ 가 되도록 유지한다.

3. 급수관리

1) 물의 수질은 매우중요하므로 사료회사 등을 통해 수질을 검사하여 음용수로서의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사용한다.

2) 깨끗한 물이 급수기로 자동 공급되도록 스텐27종 $3\text{m}\times 6\text{cm}\times 6\text{cm}$,우키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

3) 급수기 일자형은 11자형으로 만들어 양쪽으로 400-500수당 1개씩 설치하고 초기 3일간은 초생추가 고개만 돌리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형 급수기를 50수당 1개씩 설치하는 것이 좋다.

4) 급수기의 높이 조절은 물의 수평이 오리 등과 같도록 조절하고 바닥에 물이 떨어지지 않고 먹도록 관리한다.

5) 급수기는 3일에 1번은 청소한다.

6) 약제 및 영양제 급여시는 약간 절수후 급수한다.

7) 니플급수기는 초생추 10수당 1개를 설치하고 성오리는 7수당 1개를

설치하여 겨울철은 동파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4. 급이관리

1) 급이면적은 초생추 1수당 5cm²를 확보하고 항상 신선한 사료를 충분히 먹도록 관리한다.

2) 초생추 입추후 하루동안은 사료에 수분30%가 되도록 물과 영양제를 섞어 준다.

3) 2일째부터는 급이통을 설치하고 반나절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다.

4) 초생추 사료의 단백질 함량은 20±1, 대사에너지가는 2,850-2,900정도는 되어야 한다. 사료효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5) 사료는 20일까지는 크럼블의 초생추사료를 20일 후에는 펠렛의 육용 오리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사료 허실을 줄일 수 있다.

6) 사료효율이 제대로 나오는가를 알려면 50수씩 10일 단위로 계량한다.

5. 온도관리

1) 새끼오리는 정온동물이므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위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적응하지 못하고 폐사하게 되고 사료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2) 큰오리의 체온은 41.0-41.5℃이고 초생추는 아직 체온관리 시스템이 오나전히 발달되지 않아서 체온이 39.4℃밖에 되지 않는다.

3) 온도관리의 승패는 육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초생추 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추기 밑의 온도가 34±1℃, 축사 내부온도가 27℃로하여 일일 0.25℃씩 떨어 뜨린다.

4) 오리의 최적 성장온도는 15-18℃로 특히 겨울철에는 이에 알맞는 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료값이 비싼지 연료값이 비싼지를 비교하여 가온을 실시한다.

6. 입추관리

1) 초생추가 들어오기전에 품종이 무엇이고 대에 걸쳐 부화했는가를 확인한다. 이는 1대에 걸쳐 15%정도 자라지 않는 것이 나와서 출하시 유통업자가 고르게되는 원인이 되고 남은오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 잘라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게된다. 또 유통업자는 도압시 지육체중이 15%정도가 평균이하의 체중이 발생돼 손실을 입게된다.

2) 질적인 면에서는 새끼오리의 외관상태를 관찰하여 건강한지를 판단하고 양적인 면에서는 새끼오리의 숫자가 맞는지, 새끼오리의 무게, 발생시간, 도착시간, 운송도중 폐사수, 제대(배꼽)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수수, 등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으면 수송차량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입식 후 24-48시간이 지나면 초생추의 품질문제를 말하기에는 변수가 많기 때

문이다.

3) 초생추 수송차량은 매번 세척 소독하고 환기 및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수송하고 과적은 피한다. 운송기사는 수송중 식사나 휴식시간을 삼가여 빠른 시간내 운송한다.

4) 초생추 사양원칙

* 신선한 공기: 축사에는 암모니아가스, 먼지, 과습, 탄산가스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항상 환기하면서 가온하여야 한다. 초생추 눈에 눈물자국이 있으며 환기가 불량한 것으로 진단하고 환기가 불량하면 호흡기가 발생하여 눈이 감기고 나중에는 눈이 멀게된다.

* 깨끗한 물: 우리나라는 가축이 못 먹는 물은 환경오염된 물을 제외하고는 드물지만 지하수가 정체된 상태로 있는 물을 먹이면 박테리아에 오염된 물 일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 균형진 사료: 초생추의 장점막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사료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용모에 피해를 주고 육추초기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 장벽이 손상되면 성장이 정체되고 병압이 발생되므로 최상 품질의 사료를 주어야 한다. 사료의 성상, 입자공팡이독소, 살모넬라균의 오염이 없는 사료, 정확한 원료로 가공되어 새끼오리의 소화기를 보호하고 영양섭취가 잘되도록 만든 사료를 사육수수에 알맞는 급이면적을 제공하여야 한다.

* 부화장에서 초생추가 도착하면 설탕물(8%)이나 영양제를 강제급이한다면 새끼오리의 소화기를 움직이고 배설강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며 난황의 흡수도 도와준다.

* 최적온도 유지:

5) 오리사육밀도는 m²(공간) 개념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m²(면적)이다. 초생추 250수당 6.28m²의 면적으로 하고 오리무게Kg당 0.25m²의 공간이 필요하다.

6) 크리닉을 위한 약제투약은 입추후 4일,10일,17일,25일,35일,42일에 항생제 및 영양제를 투입한다.

7. 방역관리

1) 소독관 설치-소독약

2) 오리 유통차량 및 상인 출입금지

3) 농장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하, 유통차량을 농장밖에 대기시키고 농장 차량으로 운반하여 출하

4) 국내 다발하는 오리질병인 전염성 간염(바이러스), 파스튜렐라(세균성)가 발병된 농장은 오리가 없는 상태에서 소독후 휴식하여야 한다.

5) 주기적으로 축사내부 및 배수로 도로 등에 소독을 실시한다.(바닥은 값싼 생석회 살포를 통한 소독을 추천하고 축사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추천함)

6) 육추후 육추기구는 물세척후 햇빛에 건조한 다음 보관하여 재사용한다.

8. 판매

반드시Kg단위로계근후판매하여야한다.

소식지 원고 및 광고를 받습니다.

당협회는 소식지에 게재할 원고 및 광고를 받습니다.

원고는 오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원고지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광고는 업체홍보할 내용으로 유료이며 광고요금은 전면 10만원, 반면 5만원,줄박스 3만원등 입니다.

관련업체 및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안내

본회는 오리업의 건전할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코자 결성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본회의 가입은 오리업 종사자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 이뤄지며 본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월회비 1만원을 납부하면 회원이 됩니다. 본회 회원이되며 오리와 관련된 각종정보를 신속하게 받으실수 있고 본업종사시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업계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회원들의 회비납부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회납입구좌: 농협 123-01-089430 예금주 한국오리협회